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合十面

社說

羅津土地紛爭問題

一

…當局의 羅津土地紛爭…(二) [illegible]

二

따라서 羅津의 都市的 … [illegible]

三

그러나 羅津에서는 … 이미 … 正式決定이 되기도 前에 그 附近土地로 … 이 事實이었다 …

四

이點에 對하야 … 責任은 果然 …

米國, 南米에 對한 몬로主義를 抛棄?

全米諸國民諒解를 妨害한다고

新聞王·하워드氏主張

【華盛頓二十七日發】아메리카 U.P 社長 新聞王 하워드氏는 아메리카 … 몬로主義는 아메리카大陸諸國民間의 諒解를 增進할라고하는가 崇高한 理想에 基하야 案出된것인데 實際에 잇어서는 도리어 諒解를 妨害하는 障碍가 된다고 …

華府官邊意見

【華盛頓二十七日發】… 몬로主義 … [illegible]

日本의 屑鐵輸入은 武器製造가 目的?

七月中에 十萬一千三百噸

◇米國朝野重大視

【워싱톤二十七日發聯合】國務省으로부터 二十七日發表한 七月中에 아메리카 屑鐵輸出總額 十五萬五千八百噸中 十萬一千三百噸은 日本으로 輸出되엇다는데 이 … 目的으로한것이라 하야 아메리카의 … [illegible]

日蘇關係危險

九月로 事態惡化?

上海英字紙의 見解

【上海二十八日發聯合】北滿鐵道交涉決裂과 日蘇關係의 … [illegible]

豫備交涉訓令案

九月上旬頃決定

【東京電話聯合】一九三五年의 海軍會議 豫備交涉에 關하야 … 十八日閣議에 出席하야 大角海相 … [illegible]

米穀對策其他 重要問題協議

民政黨幹部會

【東京電話聯合】民政黨에서는 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 幹部會를 開하고 … [illegible]

寫眞說明 … 防備하고잇는 … [illegible]

三土前鐵相 三次召喚

【東京電話】三土前鐵相은 二十八日午後三時 三次 東京地方裁判所 檢事廷에 召喚되어 取調를 받는中이다

貴院側米調委員

【東京電話】米穀對策調查會委員으로 貴族院側의 決定된者는 如左

靑木信光子(研究會) 酒井忠正伯(研究會) … [illegible]

軍縮會議에 臨할 根本方針決定

具體案은 外相에 一任?

【東京電話】二十八日岡田、大角三相間의 協議에 … 日本政府의 … 方針 … [illegible]

一、海軍軍縮에 關하야는 列國의 現有勢力을 基準으로한 軍縮이 아니고 實質的 軍備縮少乃至 撤廢案을 提示하야 列國을 指導함

一、豫備會議에 對한 方針 … [illegible]

外相、陸相 首相과 會見

【東京電話】廣田外相、林陸相等은 二十八日 午前九時四十五分 … 首相官邸에서 … [illegible]

在滿機關改革의 整備要項決定

政友會交涉委員會

【東京電話聯合】政友會에서는 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서 在滿機關改革에 關한 交涉委員會를 開하고 在滿帝國機關의 整備要項을 決定하고 … [illegible]

整備案要項

一、關東廳의 … [illegible]

共軍約三萬名 湖南軍을 襲擊

敗北된 何軍陣容整備에 努力

長沙의 人心이 恟恟

【南京上海二十八日發】 … 江西省西南部에 잇던 共產軍 … 約三萬 … 湖南省에 侵入을 企圖하고 … [illegible]

米穀對策調查會 委員을 決定할터

三十一日閣議에서

【東京電話聯合】米穀根本對策을 樹立하기 爲하야 二十八日閣議에서 米穀對策調查會 官制를 決定하엿다 … [illegible]

民間航空國策 閣議에 報告

【東京電話聯合】林鐵相은 二十八日 閣議席上에서 … [illegible]

冷口海關出張所 卅日에 事務開始

【天津二十七日發聯合】… 冷口海關出張所는 來三十日부터 事務를 開始하리라고 公表되엇다

中國을 싸고도는 列强資本戰의 展望

(三) 南京特派員 申彦俊

三、米國의 對中資本陣

米國의 對中經濟活動은 貿易第一主義로 … [illegible]

運輸事業	一〇、八
公益事業	三五、二
商業	〇、一
工業	二〇、五
銀行金融業	二五、三
不動產	八、五
輸出入貿易商業	四七、七
其他	二、一
合計	一五〇、二

日本의 對中資本陣 … [illegible]

	中國	滿洲	合計
興業	六、五〇〇	二二、四〇七	二八、九〇七
農林	一、八〇〇	一、六五〇	三、四五〇
鑛業	二、八〇〇	三六、一二八	三八、九二八
工業	一一、八〇〇	一〇五、六一一	一一七、四一一
電氣瓦斯	一八、二五	六七九、九七四	…
運輸	八、三〇〇	六七、二五七	七五、五五七
金融	四五、八九〇	一二七、七五三	一七三、六四三
商業	三、一三四	五一、二四三	五四、三七七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二八六、九三七	一、〇九二、〇三三	一、三七八、九六〇

佛獨資本陣

佛國도 日英과같이 各地에 租界租借地를 가지고 … [illegible]

水組缺陷對策으로 水利事業을 調查

◇委員會를 開催

朝鮮農會中心의 水利事業調查 … [illegible]

水利組合의 欠陷

一、給水面積의 計劃과 實際의 …

日銀兌換券增發

八月二十五日 現在日本銀行 通貨에 依하면 兌換券發行高는 前週에 比較하야 四千九百十九萬圓 … [illegible]

若槻總裁歸還

【東京電話】去月末以來伊豆伊東의 別莊에 避暑中인 若槻民政黨總裁는 … [illegible]

消息

▲岡田朝鮮軍司令官 … [illegible]

夕刊後市況

稻扱機를 愛用하라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今年에 稻扱機는
今秋의 準備는 只今하시오
岡部合名會社

光線科 醫學博士 鄭求忠

이거품이야말로 아모리더러지거나 아모리땀에도 깨끗이빠지고 肌膚를 榮養
仁丹石鹼 一個十錢

京城 …

彩色 원모를 잡은 德世洋行

글리코 상자를 흔들며 후레- 후레-

釦 貝造人 元賣發造製 藤本株商店

태극성광목 우리의옷감 값싸고 질긴

大阪 …

多秋 帽子カタログ進呈 滿鮮向帽子品揃 大阪市北區空心町二丁目 河村善商店

卸問屋 大野合名會社

父母의나라를思慕하는 異域童心의至誠發露

끈칠줄모르는 同族救濟熱

海內海外에서陸續呼應

참담한 三남수해지의 참상으로 조선안은 물론이어니와 해외에잇는 동포들의 동정에도 바야흐로 옴지기기 시작하야 그칠줄을 모르고잇다. 만주길림(吉林)을 비롯하야 멀리 중국각지에잇는 동포들은 이역에서 한푼이아쉬운 형편이나 앗가운이 곤어모아서 보내오는동이며 조선의 고국사정을 한번도보지 못한해외출생의 어린동포도 부모에게 청가를하고나 이땅의 비보를듣고 끌어올이는 동족애를 참지못하야 그들조차 돕지기어 속속 본사를통하야 의연금을 보내오는터 상으로 본사에서는 그동안 단체의구제금을 十五차나 재지로 보내엇다. 二十八일까지 본사에 모인 구제금이 六만四천九백여원에 달하엿고 금액이 三만三천三백여원에 달하엿다.

보두 못한 故國水災에 吉林少年의純情!

가극회 열어서 구제금을 모집

【길림】 삼남수재동포의 눈물겨운 참상은 만리이역인 북만의방방곡곡에까지 전파되자 고국에서 떠나온지 五년, 六년 혹은 十년이 상 또는 고국의 땅을 밟어보지도 못한 그들 어린 마음에 까지 무한이 아픈 감격을 일르키어 맛츰내 길림 조선 기독 소년회 (吉林基督少年會)에서는 지난十三일저녁에 당지 교회에서 三남수재동포 구제가극대회(三南水災同胞救濟歌劇大會)를 열고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푼푼이 돈을 모아금 十四원을 당지 본보 지국을통하야 고국수재 동포에게 전하야 달라고 하엿다고 한다.

救濟金問題解決

【길림】 삼남수재민을 위하야 지난八월十일부터 본사길림지국에서 의연금을 모집하게되바 동포들의 비참한 동족애에 누가 감동하지안을가마는 뜻하지 아니한 당국의 저지로 오늘까지 십지 적 착수를 하지못하고 오다가 이제야 해결되어 여른한편 가급도 보내게되엿다.

基督敎會도

【길림】 삼남이재민을 위하야 길림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에서는 지난 十七일 일반교인이 집합하고 이재민의 참상을 보고하후 의연금을 모집하엿다는데 빈궁한 그들의 손에서 눈물거운 동정금 五원을 길림지국에 의뢰하야 이재민에게 보내달라고 하엿다.

赤誠을다하는 間島在住同胞

二중三중의 고통 무릅쓰고 各團體가義捐募集

【룡정】 수년이래 시국의불안 정으로인하야 해외에서 허다한 파란을 겪거가면서 기구한생활을 지속하던 간도동포는 게다가 연상가상으로 금년장마로인하야 농작물의 흉작이 또다시 주령의위협을 예상케하야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에 싸히엇건만 삼남수재의 참상을 듣고 위선죽어가는 나의 동포를 내힘자라는데 까지 건져야한다는 열성으로 지난十四일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에서 조선인민회, 상무회(商務會), 음식점조합(飲食店組合), 객주조합(客主組合), 예수교장로회, 감리회 안식회 등九단체대표와 유지제씨가 회합하야 구제금모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토의한후 모집위원을 선출하야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 일금八十여원을 본보무도구 분국에 가지고와서 「본사에 모내어 재지에서 신음고통하는 동포에게 족한숨가락써이라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는 눈물겨운부탁을 하엿다고한다.

普校同窓會도

【무도구】 간도 무도구 보통학교 (茂道溝普通學校)에서는 지난十四일에 림시동창회를 열고 삼남 수해이재동포의 참상보고가 잇은후 의연금의 다소를불구하고 이재동포에게 보내어 주려는하나 이라도 도아드려야할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동회 재무 이진우(李鎭宇)군으로하여금 금 五원을 무도구분국을 경유하야 본사에보내어 재지에배급하여주기를 부탁 하엿다한다.

안에서! 박에서! 罹災同胞를爲하야 (上)吉林少年들의活動(下)晉州婦人傳道會員들의거둔救濟品

女宣敎師까지合하야 血汗의結晶半千點

돈파함께 본보지국에 의탁해 晉州長老敎會의熱誠

【진주】 三남수재동포들을 위하야 진주 각종교단체에서 구제품을 모집한다함은 누차 보도한바와 조선예수교회장노교 진주교회(晉州敎會), 부인전도회 (婦人傳道會)에서는 회원 十五인이 다섯반(班)으로 갈라서 三부이지 나부리하아드 살이지연천입을 무릅쓰고 구제금품을 회장 방덕수(方德守)여사 지휘하에 모집하든바 거반말이낫으므로 지난二十五일 동회명의로 의복五백五十一점과 금전四원八전을 본보진주지국에 의뢰하야왓는데 그구제품중에는 조선으로 나온지 불과 八개월밧게안되는 미국인선교사 오목사부인이 자기손으로 베(布物)를사다가 할할믈으든 조선옷을 여러사람에게 몰어가며 지어 재민에게 보내달라는등 입부에를 여실히 나타낸 눈물겨운사실이 점점의 의복에 맺치어잇다.

(內譯) 現金 四圓八錢 衣服 五百五十一點 ▲男子用一九一 ▲改良北布二匹 ▲女子用三三五 ▲幼年用二三點

선수재동포의 참혹한형편을 듣고 평시의 자기들의 고생함을 생각하고 하로의 전가족 생활비를 전부터저서라도 수재지의 참혹한 동포들에게 모내고자 모흔돈 十九원 二十七전을 본사에 의뢰하엿다.

農樂을先頭로 炎熱아래猛活動

【합덕】 충남당진군합덕면점원리(唐津郡合德面點元里)에서는 이문우(李文雨) 박병두(朴炳斗) 신현모(申鉉模) 서병훈(徐炳薰) 제씨가 이번 남조선 지방의 수재이재 동포를 위하야 장마길에 쪽염을 불구하고 농악(農樂)을 선부로 전동을 순회하엿든바 동리인사들은 쟁선출연하야 다액의 금품이 모집되엿음으로 본보 합덕지국을 통하야 재지에 전달을 의뢰하엿다고.

夜學生들이품팔아

【합덕】 충남합덕면 대합덕리 (合德面大合德里) 한글야학생들은 이번 삼남의 수재로 수만동포의 비참한 정상을듣고 어린마음에 충동되어 자기들이 노동하야 얻은 돈을 모아 一원七十九전을 보내어 재지동포들에게 전하야 달라고 본보합덕지국에 의뢰하엿다.

兩婦人會活動

花臺 【화대】 명천군화대(明川郡花臺)市에잇는 화대부인친목회 (花臺婦人親睦會)에서는 회원四十여명이 이번三남수해 동포들의 비보를듣고 백여명의 젓삼을 모아가지고 대표자 홍금표(洪金杓)녀사가 지난 卄四일에 금四원을 가지고 본사화대분국을 찾아와서 의탁하엿다.

報恩 【보은】 三남이재동포를 위하야 충북보은부인회 (報恩婦人會)에서도 회장 김교현(金敎賢)외 여원제씨를 이 동원하야 집집마다 방문하고 구제금품모집에 대대적으로 활동중이라한다.

千餘學童이 募集에猛活動

안주공보생의어린정성

【안주】 어번 남선에 수만호수 재동포들을 구하자고 천진난만한 어린소학생들도 깨다르바잇어 현재 안주 공립보통학교 一천여의 어린학생들도 명명이 구제금품을 모집하는동안에 다 모집되는대로 본보안주지국으로 가저오기로 하엿다고하며 일반시민은 만흔찬사가잇다고한다.

永興市民活動

【영흥】 영흥 (永興) 시민들은 남조선수해구제금품을 모집을 위하야 八월二일경 면회의실에 각부 락대표자회를 개최하고 금품모집 방법을 의결한후 모집위원 二十여명을 선정하야 이래활동하엿 파 이미 현금一백八十여원과 의류 二백여점을 모앗다고 한다.

本社에感謝狀 罹災同胞로부터

해내 해외의 동포로부터 모여든 정성품(精誠品)을 본사에서는 十五차에걸쳐 이미 五萬七千여원을 재지에발송하엿다. 이구제금품을받은 동포들은 이따뜻한 정성에 감격한 나머지에 여러 본사에 감사장을 보내오든바 二十八일에도 고령(高靈)이재동포로부터 감사장이왓다.

○—○

입어 무릇 이재자는 三백九十여 일에 달하엿습니다. 이러한 참변에 귀사에서 솔선하야 다대한동정품을 보내주시데 대하야서는 심은감사함을 마지안나이다.

高靈郡同串面開浦洞 罹災者代表 崔海童

碧潼警察署에 張東雲自首

【신의주지국전보】 조선○○군 전번 미증유의 삼인지대중수로입하야 본중인 불행히 가옥 四十여호와 경지四十여정보의 피해를 하고 조선○○군에 가입한 이래 만주 각지에서 반만항일운동 (反滿抗日運動)에 공전을 나타냇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부사령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잇엇으나 최근 같은 규측밑에서 견디어 날수가 없어서 지난 七월 二十五일에 만주국 관전현(寬甸縣) 우하로평도 (澗河老砬子)에서 탈출하야 배회중 금번 벽동서에 대하의 수사가 엄중하므로 그와같이 자수하엿다고 한다.

製絲女工의 애끊는至誠

시내 청엽정(靑葉町)三정목 암촌제사소(岩村製絲所)녀직공 二백三十九명은 매일 二、三十전의 임금으로 늙부모를 봉양하며 혹은 어린동생들의 학비에모태어 가는 극히 빈곤한처지이나 남소

傳染病保菌者를檢索 撲滅策을徹底講究

第一着手로京城府二千名檢病

各道一齊히多發地帶調査

조선병을 전염병(傳染病)의 재화에서 조선을 건지어 보려고 최근 총독부 당국에서는 금번의 각도 위생과장(衛生課長)회의를 기회로하야 전염병 박멸회을 철저히 강구하게 되엇다고 한다. 즉 그제一보로 최근 위생과 (衛生課)에서는 전조선에 긍하야 전염병 다발지대(多發地帶)의 조사에 착수하엿다고 한다.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장 회의가 끝나는대로 각도에 명하야 철저히 보균자를 검사하는 동시에 박멸책을 강구하기로 되엇다고 한다. 그런데 경성부에서 부민二천명 에 대하야 검병한바에 의하면 ◆파라티프스◆五명과 적리(赤痢) 一명의 보균자를 발견하엿다는데

◇寫眞說明 大邱武道館의 創立六週年記念式을 二十七日 午後二時 市內同館안에서 擧行하엿는데 盛況한 式을마치고 記念戰을 行한結果 各部의勝者는 아래와갈다한다。 ▲第一部(五、六級)鄭相鎬▲第二部(三、四級)卞鍾根)

京元往復마라손 平康을通過

【平康】 白鷹俱樂部員 丁命成 安福熙、朴龍福、李根榮等一行은 지난二十七日 아침 鐵原을 떠나 午前九時三十分에 到着하엿다。 장마비로 道路가 甚히 險한데도 不拘하고 씩씩한 氣色으로 無事히 當地에서 三十分間 休憩하고 午前十時에 本報支局앞을 떠나新高山으로 向하엿다。

實業팀對抗 陸上競技大會

京城陸上競技聯盟主催 秋季實業 俱樂部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九月九日(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晴雨를 不拘하고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出場種目에는 制限이 없고 各俱樂部 一種目 三名씩 出場할수잇게 되어잇다。

그種目은 다음과갈다。

百米、四百米、千五百米、高障碍、中障碍、投圓盤 投砲丸、投槍、走巾、走高、棒高跳、等級은 六等까지 鐵走는 三等까지이며 得點은 六、五、四、三、二、一、鐵走는 五、三、一이다。

今九月부터 改正될籠球規 (上)

今年九月부터 實施될 籠球規則 改正의要項에 對하야 朝鮮籠球協會에서는發表하엿는데이에參考로 이것을 紹介하면 다음과같다。

第一章第一條 理想的「코ー트」의 長廣은 左와如히 變更함

(一)普通學校兒童程度 四十二피트—七十四피트

(二)中等學校生徒程度 五十피트—八十四피트

(三)高等、專門及大學程度 五十피트—九十피트

第三章第一條 이條文의「注意」文을 本條文으로 編入하고 이에 左記條文을 添加함

「빠스켓」은 「으링」과 「네르」(網)의 兩者로써 成立되고 「네르」는 「으링」의 下端에 附着함을 要함

第四章第一條 「뽈」의 重量는 左와如히 改正함

「뽈」의 重量는 充滿한 空氣의 氣壓이 十三「파운드」되도록 膨脹되엇을時 二十九吋半以上 三十吋 四分之一以下가될것 「뽈」의 重量는 二十九吋半以下는 絶對不許함. 그理由는 「뽈」을使用함에도 其크기가 [illegible] 에關하도록할必要가잇는까닭임

第五章 第二條 의改正은 左와如함

記錄員은 느저도 競技開始二分前에 各競技者의 姓名、番號及位置等을 授受하야 競技를 準備하며 이規則을 不履行함時는 「테크니칼•파울」를 與하고 高苦一點이「껌」開始 競技 을 後半 戰開始初에 「퍼리티」의「플레이」命令잇슴에도不拘하고 準備를아니할時 또는 遲滯할 時에 對하야는 每一分에「테크니칼•파울」一個式을 與함

但、番號이 不可避한 事로因하야 遲滞되엇다고 審判이認하는 此를 適當하게 許可할수도잇슴

第五章 第六條 此條文中에 「사스」番號에 對하야 所屬番號에 限하야 六吋를 四吋로 變更함

第六章 本條는 「따블•해퍼리」方式을 더明瞭케 規定키爲하야 改正한것으로 兩審判의 各自職務에 對하야서는 小規模의 變更에止함

第七章第三條 「헬드•뽈」은 自己 「푸론트• 코ー트」內에서 擾擾하야「까ー드」를 當한 競技者가 競技를 避하야 「뽈」을保持하엿을때일 此는 「빽ー코ー트」內에서는 適用치아니함。 이는「빽•코ー트」內에서는「플레이」를 계하야「뽈」을 保持한때에는 十秒「룰」이 잇는까닭임。

清溪俱優勝 아마野球決勝戰

朝鮮아마추어 野球協會의 第一回大會決勝은 全仁川對 淸溪俱樂部으로 二十七日 午後四時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竹內(梨)十文字、小西(仁)三審判、淸溪先攻으로 開始한바 十四對十으로 淸溪가優勝하엿다(時間七時二十分)

投捕(仁)原田、山崎、關口(淸)加賀美、山中淸家

得點 (淸 1003040 2004=14 / 仁 3020300 2000=10)

高麗野球全勝 海州에서兩次戰에

서울의 高麗野球團은 海州에서 遠征하야 지난 二十六日 海州에서 海州高普와 및 全海州軍과 야 雙戰을 行한바 兩次戰全勝하엿다

得點 高麗 143 010=15 / 海高 000 000—0

(海州) 3洪文吉 5金秉度 1稻田 8張 4佐佐木 2李斗高 6 9田 7 / (高麗) 7崔仲乙 6 1李 2 4 8 5金 3金 9金

得點 (海 000 100 101—3 / 高 201 000 10A—4A)

羅南에收容된重傷者 即日로二名死亡

◇대부분이 경성농업학교 생도

咸鏡線列車墜落後聞

【경성】 기보한바와 같이지난 二十七일 오전八시경에 나남(羅南)근처의 남행중화물열차가 경성(鏡城)읍 상거하기약三킬로 지점 인구덕천(九德川)철교우를 통과 할제 뒤끝에잇는 객차가 차륜이 이번 참사에 경성공립농업학교(鏡城公立農業校) 농업학생의 반수 인二十二명의 중경상자를 내엿다 하며 중상자는 입원치료중에 당일오후五시까지에 三명이 또 사망하엿는데 남은 중상자도 매우위독하여

汽關手와車掌檢問

그만 레일로부터 떨어지지 접속 하여잇든 화물차三대가 이어떨어 젓는데 객차만은 철로로부터 하천에 떠러지어서 승객八十여명중 五十五명의 사상자를내인 조선철도 희유의 一대참사를 연출하엿는데 이번 사상자 五十五명중 二명이 즉사하엿고 그중에 다수학생인 어린보통학교생도가잇다. 동한 상태이다.

현장에 청진지방법원 대전검사 (大町檢事)가 출장하야 입회하는 동시에 경성에서 동검사 가 그열차의 기관수와 차장들을 검문하엿다한다.

◇暴風解除

二十八日午後八時三十分 仁川觀測所發表 京畿、忠南、忠北、慶北의 暴風警報를 解除함。

★그날그날★

陽八月二十九日(水曜日) 陰七月二十日(壬申)

日出前六、○○ 日入後七、○九 月出前九、二二 月入後十、五二

【滿潮】 仁川前八、○○後八、三○ 釜山前一一、○○後一一、二○ 新義州前一一、一○後一一、三○

벌서零下五度

惠山鎭上流獨山의 超스피드的秋寒襲來!

【혜산진】 혜산진(惠山鎭)상류 독산(獨山)주재소부근은 二十七일밤부터 기온이 급강하야 二十八일오전五시에는 영하 五도를 보이고 또 오전라 운 우박이 한시간이상을 나리엿다

(註) 조선에서 영하 四十三도 六분 제일치운기록을가진 중강진 (中江鎭)도 예년 十월이되어야 영하一도를보이는데 이와같이 八월중에 영하五도를 보이기는 실로 최초의기록이다.

듣기에도끔직한 새지전一億圓

험해한 건너서 조선에로 卅名護衛아래旅行!

굉장하게도 一억원의 지폐(紙幣)를 동경(東京)을 떠나 물결사나운 현해탄(玄海灘)을 건너서 조선에 드러 왓다. 그런데 때가때이며 또 최근에 미국뉴욕에서 대담한 은행갱단 사건도 발생 하엿든지라 三十명의 일본은행(日本銀行)본점으로부터 조선은행(朝鮮銀行)으로 보내는 태환지폐(兌換紙幣) 一억원을 무장경관이 호위하에 강철화차 (鋼鐵貨車)에 실어가지고 지난二十五일에 동 한때의 무장경관대는 동경서부터 지키어 한대의 지나도 자지못하고 지키며 뭉치를지키기에 눈이 빨개엇다고 한다.

勇敢한열한살난少女 동무救하다가함께溺死

清溪川上流에가련한어린두魂

【조선】 지난二十六일 오전十一시경에 안성군 주천시(安城郡注川市)장 앞에 잇는 청미천(淸渼川)상류에서 일죽면가리(一竹面佳里)윤영옥(尹泳玉)(一七)씨의 누이동생 창이(昌伊)(八)와 그동리사는 김천만(金千萬)(一七)의장녀순이(順伊)가 목욕을 하다가 무참히 빠저죽엇다는바 김순이는 八시간후 六시간만에 윤창이는 八시간후에 사체를 건저내엇는데 윤창이는 그 일죽공보교 二학년 생으로서 그날마침 김순이외 두명의 동무 아이들과 같이 오전十시 三十분경에 집을나가 전기 청미천에서 목욕을 하고 놀든중 김순이가 물에 빠저 떠나려 가는것을 보고 구하려고 뛰어들어갓다가 정녀밤 우로 장의된 타랑에 휩쓸리어 그와같이 참혹하게 죽은 것이라 한다

갈더이라한다.

古家崩壞 人命被害없어

二十八일 아침 부내 소격동(昭格洞)一백一번지 서상원(徐商源)

의초가 一간이 문허졋다. 그러나 다행히 인축의 사상은 없엇는데 도피되엿든것은 집이 낡엇기때문이라한다.

세처女警察에

가을바람에놀아나 二十八일 종로서에 보호검속 모두春川떠난女子

가을 바람에도 처녀들이 놀아 낫다. 二十八일 오전十一시경에 춘천(春川)으로부터 도착되는 내선자동차부(內鮮自動車部)의 자동차 로 이곳처녀三명이 경성에 도착 되어 거리를 헤매다가 수상히본 종로서원에게 붓들렷는데 그들은 三년전에 집을 나간 부친을 찾어 서 서울로왓다고하나 그것은 되는대로 꾸며댄 말이엇고 그들은 춘천읍 재판소 뒤에사는 박복순 (朴福順)(一七)동읍내 대정정(大正町)二정목 一五四번지 정서운(鄭□)(一七) 동一五三번지 정□순(鄭□)(一七)등으로 서울을 동경하든길에 집을나온것이라고 하는데모두 용모가 미인이라 그들의 소행이 좀수상하다고한다.

治外法權撤廢와 在奉人士決議

【봉천】 만주국(滿洲國)이 건국된지 불과 三년내에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철폐할

日滿要人暗殺團 重大計劃또暴露

犯人은張學良系軍人

【경성전화二十七일발】 지난七월二十九일에 농안(農安)관동군 사령관이 남신경(南新京)부근을 검열하기 전날 신경(新京)성내 헌병대본대에서는 성내를 경계하든중에 거동이수상한 한명의 중국 노동자를 체포하야 취조하엿든바 파 그는 북평장학량(北平張學良) 이로부터 파견된 장학의(張學毅) 계의 육군소위로써 집정중원회하(執政□下)의 어도만을 기회로 하야 일본군 최고간부와 만주국 대신급 다수를 암살할 목적으로 중대시하고 잇든 그는 전기 특별 임무를 맡고 잇든중 신경에 잠입한 이래 현병대에서는 그자백을 자료로 일단 취조가 끝나는대로 그의 신체를 만주국에 인도하엿다고 한다.

二百年前의 骸骨發見

二十七일 오후七시三十분경 서 내 동사헌정(東四軒町)二백十五번지 대구보박 (大久保博)(?)의 집털에서는 해골한개가 발견되엇 는데 거의 흙으로 화함정도로 되어 모二백년전에 묻친것으로추측 된다하며 이것은 본정서(本町署) 의손을거처서 경성부성 으로 넘어 갓다.

青年投井自殺

二十六일 오후十시경 주소불명인 김봉순(金鳳順)이란 청년이 한강인도교에서 투신자살을 한것을 발견하고 방금 유신서에서 시체를 수사하는 중인데 그의 이름은 버리고 죽은 유류품에서 발견되엇다고 한다.

休紙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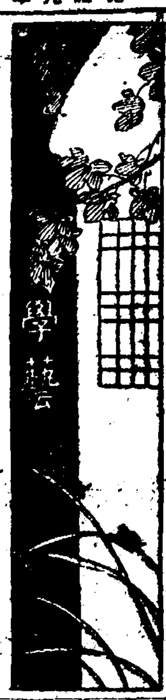
[illegible]

學年延長期成會

[illegible]

營口安全農村 初年作大豐

영구(營口) 안전농촌의 초년작(初年作)인 금년도의 농작물은 [illegible]



新學期開始에際하야

教育時評(二十二)

룸펜少年과帽票 (下)

宋陽波

現在 在學生指導도 合理的으로 어려운데 더구나 四面에 흩어저 있는 卒業生指導의 實質的效果를 얻기는 至難한 노릇이다. [illegible]

말이 [illegible] 에比하야 [illegible] 이였으니 一言을 費하는바이다.

學校當局에서도 少數卒業生 學校[illegible] 學校卒業生이 士官되는이만 目標로 하고 [illegible]

[illegible]

城北青龍庵에서 (上)

李允宰

올 여름은 關北地方으로 北間島로 長途旅行을 하기로 豫定하였든것이 [illegible]

朝鮮語學會에서 [illegible]

[illegible]

海外文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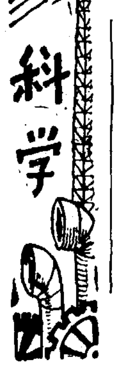
獨逸 (4)

◇「나치」文學의新

雜誌

「나치」文壇을論하야 氣焰을吐하는 新諸國內部의「나안」가 四月에 創刊되었다. [illegible] 의 詩人이며 小說家이다. [illegible] 「一八九七年生」라 大戰後의 農民生活에 取材하는 小說家 [illegible]

[illegible]



碧空의科學 (上)

가을하늘은 어째서 푸른가

鞠採表

때는 處暑를 넘어서자 가을로 더 푸르다. 푸르다못해 藍色을지녀 가을로 될아나라는 하로를 지나면 어제보다 이틀을 지나면 그제보다 아침과 저녁의 날씨는 [illegible] 가을하늘은 [illegible]

[illegible]

그러데 보자 空中에는 몬지와 水分子와 空氣分子가 가득 차있다. [illegible]

七色光의 混合光인 太陽光線은 空中에 浮遊하는 몬지·水分子·空氣分子로 [illegible]

[illegible]

多島海巡航 (四)

航海의案內者 燈臺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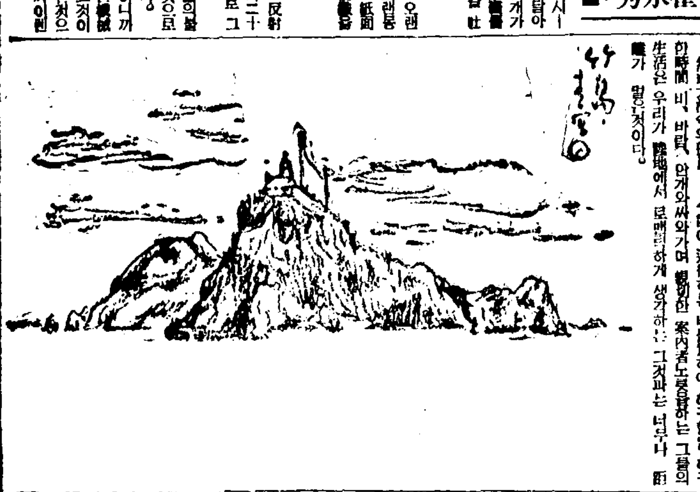
文·崔永秀·畫

[illegible]

竹島는 多島海中에서 第一重要한 燈臺의 所在地이요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곳이다. [illegible]

燈臺의 燈光은 九萬五千燭인바 事實인즉 一千三百燭의 本光을 反射作用으로써 [illegible]

[illegible]



南遊寄信 【第廿一信】

鄭寅普

二十七日부터 三十一日까지 [illegible]

[illegible]

訂正

[illegible]

農家의黃昏

金朝奎

寂寞한 저녁煙氣 山기슭으로 기여들고 [illegible]

[illegible]

今日프로로

日曜水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俗謠
(一)앞산打鈴 (二)뒷산打鈴 (三)[illegible] (四)遊山歌 (五)[illegible]

夜間部

▼零時四十分 뉴스
▼二時 [illegible]
▼四時 뉴스 [illegible]
▼六時三十分 [illegible]
▼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 [illegible]
▼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
▼八時 [illegible]
▼八時三十分 [illegible]

第一放送

[illegible]

▼九時 [illegible]
▼十時 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illegible]

[illegible]

人間問題 (21)

姜敬愛 作
李象範 畫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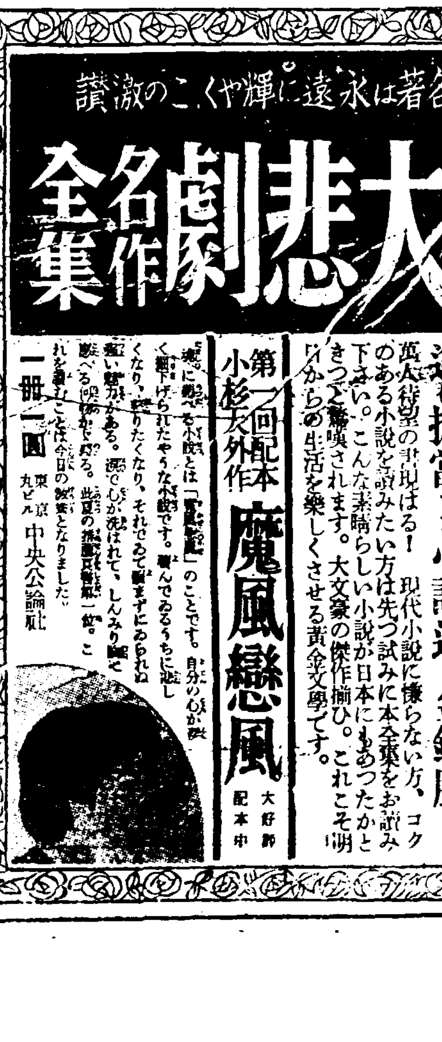
[illegible]

新舞臺 八月二十[illegible] 夏期納涼大公演

團成社 [illegible]

朝鮮劇場 [illegible] 五百圓事件 [illegible]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illegible]



武田發賣品
오호르몬
卵巢實質호르몬 オオホルミン
女子40-50歲時代에오는諸症狀
頭痛, 眩暈, 耳鳴, 多汗, 不眠, 四肢冷感, 腰部冷感, 心悸亢進, 不安感, 胸內苦悶, 頭部의逆上感, 精神憂鬱, 記憶力減退。
以上의諸症狀은、更年期에生理的으로오는卵巢호르몬分泌의不足減退가主因이되는것이므로、卵巢호르몬인オオホルミン을使用할時는、適正한治療效果를發揮할수있다。
【包裝】注射液 6×1cc, 30×1cc, 3×2cc, 6×2cc, 30×2cc 粉末 25g, 100g 錠劑 50錠, 100錠, 500錠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五六十歲의老人도參加 場所陝搾으로大困難

가르키고배우는것이모다神聖한場面

本社主催第四回夏期啓蒙運動 十四

周子街 萬里異域에서 疾病과싸워가며

場所 周子街[illegible]
日字 自七月二十七日至八月十六日
生徒數 男八十一名 女三十九名 合計百二十名
隊員數 男先生二人 女先生二人 合計二人

만리이역 주소에서 시국이 불안하야 부득이 ... [illegible]

(責任隊員 [illegible])

家連郡 病魔에捕虜 不得已못하게돼

生徒數 男九十八人 女三十五人 合八十五人
隊員數 第七人

저는 귀사의 계몽운동에 참가하여 ... [illegible]

(責任隊員 [illegible] 永 [illegible])

鐵城郡 病으로中止 ◇後期에다시

귀사 계몽운동대에 참가하여 ... [illegible]

(京城 [illegible] 別動隊 [illegible])

安岳郡 比較的良好 모두다熱心으로

場所 [illegible]里
日字 七月二十三日
生徒數 男九人 女三人 合計十二人
隊員數 男先生一 合計一人

[illegible] 다.

(責任隊員 [illegible] 李春英)

价川郡 許可가遲延 할수없이못해

場所 价川郡[illegible]
中止 許可不出로中止

귀사 계몽운동에 큰포부를가지고 ... [illegible]

(責任隊員 [illegible])

寧遠郡 病魔에捕虜 不得已못하게돼

[illegible]

龍山郡 無條件禁止 모든努力은水泡

[illegible]

(中學[illegible])

閩島 六百名參加 明年에또다시

場所 閩島[illegible]百草溝朝鮮監理敎會
日字 自七月二十七日 至八月十七日
生徒數 男女五百七十二名
隊員數 十五名
經費出處 監理敎會

전간도를 통하야 ××군과 반만구의 세력에 포위되어잇는 이곳은 피란민만으로 근 천여호에 달하는바 이렇게 제일 가르키기 위하야 해마다 당지 감리교회에서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경영하엿다. ... [illegible]

熙川郡 老婦人도參加 十五日만에中止

場所 熙川郡[illegible]
日字 自八月一日 至十五日

[illegible]

啓蒙隊員活動狀況 高揚郡龍江面汝栗里 會事 崇仁鴻

京城府 반쪽은성공 남은것을에

場所 [illegible]
日字 自八月二十日 至八月三十一日
生徒數 [illegible]男女百五十人 死亡男女八十人
合計二百三十人
隊員數 [illegible]男先生四人 死亡男先生二人 女先生一人 合計七人

나는 가난하집 자녀들을 가르키어서 우리조선사회의 참다운 일꾼이 되어 ... [illegible]

(責任隊員 東亞[illegible])

咸陽郡 警察이禁止 못하못일위한합

선생님 이곳은 바로 조선에유명한 지이산(智異山)산맥이 약四里의 거리를 떠러잇는 ... [illegible]

(責任隊員 別動 李[illegible])

宜川郡 學藝會도해 來年으로約束

場所 宜川郡[illegible]
日字 自七月二十六日午前八時至八月十六日
生徒數 男三十五人 女四十九人 合八十三人
隊員數 男先生金[illegible]、金[illegible] 女先生金炳[illegible]、李永[illegible]、金成會 合五人

과거 三주일간 재미잇게 지내엇습니다. ... [illegible]

(責任隊員 [illegible])

三南水災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八日午後五時까지整理分】

金貳萬貳千參百圓·品 六萬四千九百點

◎金拾圓也 通川郡庫山面歙谷分局取扱

(內譯) 拾錢 歙谷 慈東醫院 拾錢 同 趙仲孫 貳拾錢 同 無名氏 貳拾壹錢 同 孟永國 貳拾五錢 同 李允鎬 參拾五錢 同 李允根 參拾錢 同 龍致雲 五拾錢 同 張敬雲 五拾錢 同 姜成澤 五拾錢 同 申鉉斗 五拾錢 監理敎慈東敎會女宣 敎會一同 壹圓 歙谷 李致淳 壹圓 同 朴熙舜 壹圓 同 車永煥 壹圓四拾九錢 同 監理敎慈東敎會內期兒童聖經學校生徒 貳圓 歙谷 姜期淳

◎金參拾四圓七拾八錢也 合德支局取扱

(內譯) 參圓 合德公普校同窓會員一同 參圓 [illegible]一同 貳圓 同 申鉉模 貳圓 同 朴炳斗 壹圓 同 李相哲 壹圓 同 徐丙完 壹圓 同 李丁云 壹圓 同 尹重碩 壹圓 同 李秉源 六拾錢 同 柳仁用 六拾錢 同 金成九 六拾錢 同 徐丙九 五拾錢 同 徐丙鼎 五拾錢 同 李奎洪 五拾錢 同 金東元 五拾錢 同 鄭應五 參拾錢 同 李公信 參拾錢 同 李順容 參拾錢 同 朴敬祚 參拾錢 同 李昌烈 參拾錢 同 李益桂 參拾錢 同 金時鍾 參拾錢 同 張禹植 參拾錢 同 李德有 參拾錢 同 李湖容 參拾錢 同 金英培 參拾錢 同 朴基來 參拾錢 同 金鳳基 參拾錢 同 吳聖元 參拾錢 同 朴琮奎 參拾錢 同 徐廷泰 參拾錢 同 裵點淑 貳拾壹錢 同 朴善奎 貳拾錢 同 朴炳基 貳拾錢 同 梁山伊 貳拾錢 同 崔龍福 貳拾錢 同 金云台 貳拾錢 同 申尙均 貳拾錢 同 李鍾國 貳拾錢 同 朴元京 貳拾錢 同 金敬西 貳拾錢 同 田鎭恒 貳拾錢 同 金東煥 貳拾錢 同 金彦來 貳拾錢 同 徐相玉 貳拾錢 同 田鎭九 貳拾錢 同 金泰吉 拾七錢 同 金永培 拾五錢 同 宋洛順 拾五錢 同 金相德 拾五錢 同 鄭成五 拾五錢 同 李春京 拾五錢 同 申相均 拾五錢 同 全洛春 拾五錢 同 徐元西 拾五錢 同 李起鎬 拾五錢 同 李斗容 拾五錢 同 金道心 拾五錢 同 申順萬 拾五錢 同 朴聖培 拾五錢 同 韓夢實

拾五錢 同 李範順 拾貳錢 同 朴環奎 拾貳錢 同 金仁權 拾貳錢 同 李鉉克 拾貳錢 同 朴炳尙 拾貳錢 同 金榮俊 拾貳錢 同 金成儀 拾貳錢 同 金成錫 拾錢 同 洪順興 拾錢 同 姜炳秀 拾錢 同 李建永 拾錢 同 李鹿夏 拾錢 同 李德浩 拾錢 同 徐光成 拾錢 同 李公三 拾錢 同 崔永洙 拾錢 同 文順昌 拾錢 同 李丙夏 拾錢 同 李鎭玉 拾錢 同 吳道燮 拾錢 同 金先日 拾錢 同 黃銀同 拾錢 同 徐學順 拾錢 同 申秉均 拾錢 同 徐丙穆 拾錢 同 梁建澤 拾錢 同 梁文淑 拾錢 同 李成九 拾錢 同 李鍾九 拾錢 同 李好植

拾錢 同 朴炳龍 拾錢 同 金範玉 拾錢 同 梁鳳煥 拾錢 同 金近西 拾錢 同 嚴成鎭 拾錢 同 文敬來 拾錢 同 李文壽 拾錢 同 金君玉 拾錢 同 李奎泰 拾錢 同 金德三 拾錢 同 金光五 拾錢 同 洪道汝 拾錢 同 柳建培 拾錢 同 全魯成 六錢 同 朴炳浩 六錢 同 李成伯 六錢 同 韓德洙 六錢 同 金龍瑞 六錢 同 朴南奎 五錢 同 金明植 參錢 同 嚴成敎 柳任洙 貳拾錢 合德面大合德里禹文俊 拾錢 同 金漢培 拾錢 同 吳炳夏 拾錢 同 曺尙俊 拾錢 同 金鍾安 拾錢 同 朴今順 拾錢 同 洪聖基 拾錢 同 朴貞熙 拾錢 同 李俊任 拾錢 同 金在源 拾錢 同 吳炳彦 拾錢 同 朴甲龍 拾錢 同 金龍男 拾錢 同 孫基安 拾錢 同 金德鎭 拾錢 同 田且粉 九錢 同 崔泰振 五錢 同 鄭仁重 五錢 同 車允宣 五錢 同 呂興金 五錢 同 金允培 五錢 同 洪革基

◎金貳拾八圓七拾七錢也 京城青葉町岩村製絲所一同

▲九圓五拾錢也 職員一同

壹圓貳拾五錢 藪田尙太郞 壹圓貳拾五錢 石原磯次郞 壹圓貳拾五錢 三枝保甫 壹圓貳拾五錢 井上準達 同 廣瀨龜次 五拾錢 同 朱承燦 五拾錢 同 青柳一雄 五拾錢 同 山本憲治 五拾錢 同 柳錫範 五拾錢 同 安光熙 五拾錢 同 山崎菊代 壹圓 同 金珠

▲四圓八拾五錢也 再繰部

參拾錢 同 朴有順 貳拾錢 同 徐福姬 貳拾錢 同 柳炳伊 參拾錢 同 徐順伊 拾錢 同 盧七男 拾錢 同 金珍淑 五拾錢 同 姜順熙 貳拾錢 同 沈福燮 五拾錢 同 崔熙先 貳拾錢 同 金貞禮 五拾錢 同 申敬順 貳拾錢 同 朴順伊 拾錢 同 李順福 貳拾錢 同 朴千順 拾五錢 同 盧福順 參拾錢 同 李淑子 拾錢 同 李鍾禮 五錢 同 沈順禮 五錢 同 李無順 五錢 同 姜貞玉 五錢 同 尹玉淳 五錢 同 黃致順 參拾錢 同 曺壽玉 拾錢 同 權孝淑 參拾錢 同 文武松 貳拾錢 同 申貞淑 拾錢 同 崔貞淑 參拾錢 同 金海源 參拾錢 同 朴炳星 五錢 同 南錫熙

▲五圓拾錢也 優等部

五錢 同 洪南杓 一五錢 同 金丙先 五錢 同 柳喜俊 五錢 同 李明淑 貳拾錢 同 禹点鳳 拾錢 同 李玉順 拾錢 同 鄭禮順 拾錢 同 李点安 拾錢 同 趙乙順 拾錢 同 金桂春 拾錢 同 金点順 拾錢 同 南貞順 拾錢 同 趙今順 拾錢 同 梁貞姬 拾錢 同 朴喜順 拾錢 同 尹貞任 五拾錢 同 申貞順 貳拾錢 同 金振伊 拾錢 同 金每月 五錢 同 朴玉子 拾錢 同 金貞順 拾錢 同 洪一杓 拾錢 同 鄭相元 拾錢 同 李富田 拾錢 同 李玉姬 拾錢 同 成貞玉 拾錢 同 李明淑 拾錢 同 金鳳伊 拾錢 同 金丙玉 拾錢 同 洪永信 拾錢 同 金英淑 拾錢 同 朱鳳伊 拾錢 同 金振昌

▲四圓拾四錢也 準優部

五錢 同 韓有喜 五錢 同 金點順 五錢 同 韓奉順 五錢 同 慶銀順 五錢 同 高福順 五錢 同 尹順玉 五錢 同 張任德 拾錢 同 吳晚粉 拾錢 同 李雅順 拾錢 同 洪鉉存 拾錢 同 安玉淑 拾錢 同 尹奉順 拾錢 同 尹今先 拾錢 同 崔三子 拾錢 同 金春星 拾錢 同 金今葉 拾錢 同 張順德 拾錢 同 申庚順 拾錢 同 柳末禮 拾錢 同 崔男順 拾錢 同 李阿只 拾錢 同 金貞姬 拾錢 同 申仁淳 拾錢 同 申庚淳 貳拾錢 同 張点童 拾五錢 同 李点順 拾五錢 同 李貞順 四錢 同 姜順姬

▲貳圓貳拾錢也 繰糸普通部

拾五錢 同 南慶熙 五錢 同 金在庚 五錢 同 申貞淑 五錢 同 李英淑 五錢 同 金順子 五錢 同 韓南鎭 五錢 同 李千蘭 五錢 同 慶順伊 五錢 同 朴喜昌 拾錢 同 李仙女 五錢 同 河岩南 五錢 同 朴昌景 五錢 同 林漢順 五錢 同 柳景淑

五錢 同 姜六禮 五錢 同 鄭壽男 貳拾錢 同 金昌浩 拾錢 同 崔三順 拾錢 同 崔興子 拾錢 同 梁言男 拾錢 同 南貞順 拾錢 同 洪正愛 拾錢 同 申相禮 拾錢 同 柳順男 拾錢 同 金振順 拾錢 同 朴九男 拾錢 同 徐正運 五拾錢 同 崔榮福 貳拾錢 同 朴元順 拾錢 同 白惠慶 拾錢 同 梁貴童 五錢 同 辛普善 拾錢 同 安光鉉 拾錢 同 白文學 拾錢 同 全白龍 拾錢 同 安聖萬 拾錢 同 申貞順 拾錢 同 崔基申 拾錢 同 尹英淑 拾錢 同 李起明 拾錢 同 林容今 拾錢 同 沈点得 拾錢 同 金明淑 拾錢 同 申貞淑 五錢 同 趙任順 五錢 同 柳連淑 五錢 同 尹貞順 五錢 同 黃基順 五錢 同 金根順 五錢 同 張玉順 五錢 同 柳孝淑 五錢 同 洪銀任 五錢 同 朴良烈 五錢 同 宋貞花 五錢 同 金公淑 五錢 同 韓今順 五錢 同 吳愛基 五錢 同 安玉姬 五錢 同 金玉順 五錢 同 朴明珠 五錢 同 趙貞煥 五錢 同 具英慶 五錢 同 南順玉 五錢 同 鄭今玉 五錢 同 金和順 五錢 同 金善玉 五錢 同 金義順 五錢 同 南順伊 五錢 同 金淑伊 五錢 同 任愛基 五錢 同 鄭南禮 四錢 同 趙英淑 五錢 同 洪貞淑 五錢 同 蔡甲乭 五錢 同 金裕順 五錢 同 金貞順 五錢 同 安明珠 拾錢 同 朴福童 五錢 同 金玉童 五錢 同 崔富姬 五錢 同 李英伊 五錢 同 朴貞順 五錢 同 安孝順 五錢 同 朴有順 五錢 同 金昌粉 五錢 同 劉千蘭

五錢 同 李長順 五錢 同 朴三男 拾錢 同 吳潤姬 五錢 同 崔玉粉 五錢 同 申今禮

▲貳圓九拾八錢也 養成部

五錢 同 朴分禮 五錢 同 邊順在 五錢 同 鄭相伊 五錢 同 李基仁 五錢 同 任順鎬 五錢 同 金南極 五錢 同 孫貞順 五錢 同 朴英淑 五錢 同 朴允聖 五錢 同 安貞子 五錢 同 仝基善 五錢 同 全弼男 五錢 同 李分禮 五錢 同 金必禮 五錢 同 南妙姬 五錢 同 金南漢 五錢 同 具金會 五錢 同 曺基姬 五錢 同 趙仁淑 五錢 同 金南英 五錢 同 尹喜榮 四錢 同 金貞姬 四錢 同 朴漢伊 四錢 同 金分禮 四錢 同 金玉辰 四錢 同 朴任順

拾錢 同 尹英伊 五錢 同 金淑伊 拾錢 同 朴末順 五錢 同 陸貞淑 參錢 同 李昌順 參錢 同 李玉姬 參錢 同 林英順 參錢 同 趙順元 貳錢 同 安貞禮 貳錢 同 朴昌淑 貳錢 同 洪景淑 貳錢 同 安鍾明 貳錢 同 徐貞姬 貳錢 同 柳英順 參拾錢 同 蔡京淑 參拾錢 同 近金玉 拾錢 同 李武鍾 五錢 同 林在順 五錢 同 金命順 五錢 同 金敬子 拾錢 同 鄭壽男 五錢 同 權孝順 五錢 同 李容婉 五錢 同 孫得奉 貳拾錢 同 仝蒴蘭 同 扈貞任 同 朱興培 同 趙福煥 同 金學姐

◎金八拾五圓九拾參錢也 頭道溝分局取扱 (送料四拾錢除 實人金八拾五圓五拾參錢也)

(內譯) 五圓 頭道溝 普通學校同窓會 五圓 同 朝鮮人民會 參圓 同 殖産會社 壹圓 同 商務會 壹圓 同 金鳴女 壹圓 同 客土組合 貳圓 同 朴德仁 壹圓 同 飮食店組合 壹圓 同 朱漢明 壹圓 同 元世敬 壹圓 同 白羽鶴 壹圓 同 李同春 壹圓 同 金秉奭 五拾錢 同 李容政 五拾錢 同 李岐鉉 參拾錢 同 金友商店 貳拾錢 同 金亨基 五拾錢 同 洪英煥 五拾錢 同 李興燮 參拾錢 同 朴信烜 貳拾錢 同 朝日商店 貳拾錢 同 鄭文補 五拾錢 同 韓聖在 五拾錢 同 張敏洙 壹圓 同 崔禹集 壹圓 同 金尙仁 五拾錢 同 李基完 五拾錢 同 崔學秋 壹圓 同 金炳烈 貳拾錢 同 金寬植 五拾錢 同 趙鼎學 五拾錢 同 李南俊 貳拾錢 同 吳國龍 五拾錢 同 李春鶴 五拾錢 同 崔永道 壹圓 同 金鍾彦 貳拾錢 同 金龍彦 壹圓 同 宋福女 貳拾錢 同 劉永熙 參拾錢 同 曺秉振 參拾錢 同 崔基鎬 五拾錢 同 張尙彦 五拾錢 同 宗興巢子店 貳拾錢 同 尹在浩 參拾錢 同 崔天日 五圓 同 尹在玩 參拾錢 同 龍城舘 五拾錢 同 金公天 五拾錢 同 李德成 參拾錢 同 姜蘭胃 貳拾錢 同 崔漢淑 參拾錢 同 崔泰京 參拾錢 同 金善澤

五拾錢 同 鄭基範 壹圓 同 李觀燮 壹圓 同 金圭赫 五拾錢 同 金寬植 五拾錢 同 金德順 五拾錢 同 金元棟 參拾錢 同 李愛受多 貳拾錢 同 姜昌烈 貳拾錢 同 中島洋服店 五拾錢 同 申國鉉 壹圓 同 梁煥哲 五拾錢 同 董煥哲 貳拾錢 同 裵昌洛 貳拾錢 同 馬基宗 貳拾錢 同 柳泳善 拾錢 同 黃河珍 拾錢 同 任京律 拾錢 同 李東濟 拾錢 同 張炳七 五拾錢 同 金元淳 貳拾錢 同 金公極 貳拾錢 同 林昌浩 貳拾錢 同 金彦重 五拾錢 同 朱永化 參拾錢 同 黃敏俊 拾錢 同 金起龍 拾錢 同 沈乃文 拾錢 同 林明煥 拾錢 同 金貞淑 壹圓 同 郭萬和 五拾錢 同 李震宇 貳拾錢 同 黃潤琦 五拾錢 同 表公順 五拾錢 同 曺秉淳 貳拾錢 同 李春光 五拾錢 同 李義南 五拾錢 同 吳圭昌 五拾錢 同 崔마리아 五拾錢 同 崔承煥 五拾錢 同 孫炳一 貳拾錢 同 朴成龍 貳拾錢 同 金昌信 貳拾錢 同 金化益 拾錢 同 元允常 壹圓 同 申南徹 壹圓 同 三星洋襪工場 元榮孫 五拾錢 同 崔星七 參拾五錢 同 李錫勳 拾錢 同 李氏 拾錢 同 李英子 貳拾錢 同 南允玉 貳拾錢 同 金龍國 貳拾錢 同 李柱景

五拾錢 同 李秉根 五拾錢 同 孟昌根 拾錢 同 吳永世 五拾錢 同 全仁甫 拾錢 同 李馬大 五拾錢 同 金敬子 拾錢 同 朴興善 五拾錢 同 羅在德 拾錢 同 李蓮植 拾錢 同 崔炳柱 參拾錢 同 李桂悅 參拾錢 同 李益鎬 拾錢 同 石燦化 拾錢 同 趙永恩 五拾錢 同 金仁燮 參拾錢 同 金俊道 參拾錢 同 金錫鎭 五拾錢 同 鄭錫林 貳拾錢 同 李哲子 貳拾錢 同 李敎林 拾錢 同 黃順克 拾錢 同 朴昌厚 拾錢 同 李春極 五錢 同 金德淑 五錢 同 車英河 拾錢 同 黃光河 拾錢 同 李東周 五拾錢 同 李元根

五拾錢 同 郭善學 五拾錢 同 朴弼彦 五拾錢 同 申晃奎 五拾錢 同 李春三 貳拾錢 同 金在文 五拾錢 同 金鳳夏 拾錢 同 金宗學 拾錢 同 金元錫 參拾錢 同 曺命煥 壹圓 同 宋文玉 壹圓 同 崔駿 五拾錢 同 朴根華 五拾錢 同 兪榮桂 五拾錢 同 朴章煥 五拾錢 同 林重集 參拾錢 同 具元奎 參拾錢 同 申俊典 貳拾錢 同 崔基彦 貳拾錢 同 沈俊擇 貳拾錢 同 姜宗熙 拾錢 同 崔在根 拾錢 同 金山 五拾錢 同 朴興信 五拾錢 同 朴興壽 拾錢 同 安一俊 貳拾錢 同 朴圭양 拾錢 同 金昌福

◎金壹圓五拾錢也 西氷庫大興綢緞布木商店員一同

(內譯) 五拾錢 朴震澤 四拾五錢 同 朴興澤 貳拾錢 同 崔壽福 貳拾錢 同 朴光奉 拾五錢 同 朴敬澤

九圓 龍山郵便局朝鮮人從業員一同 各個義捐額

小計 金壹百六拾五圓五拾八錢也

累計 金貳萬貳千參百貳拾六圓九拾壹錢也

▲物品九拾點 橫城支局取扱

(內譯) 衣類三件 橫城郡書院面六里安那婦人會一同 三件 同 金輝順 三件 同 申明休 三件 同 辛元熙 一件 同 李萬汝 二件 同 林玉容 五件 同 宋鶴順 一件 同 趙二分 一件 同 安在順 四件 同 鄭奉熙 一件 同 鄭女仁 一件 同 張錫一 八件 同 金德山 二件 同 匿名氏 三件 同 李萬順 三件 同 李炳順 一件 同 韓順女 三件 同 金順星 五件 同 趙漢儿 三件 同 崔德淳 三件 同 崔震洙 一件 同 金順方 一件 同 崔洙熙 三件 同 嚴萬淳 二件 同 嚴明善 一件 同 李姉內 二件 同 李又愛 五件 同 申萬喜 二件 同 李淳榮 八件 同 梁幼姬 一件 同 朴女史 二件 同 金東女 二件 同 申鉉鍾 四件 同 柳連基

▲物品參拾七件 加平支局取扱分

(內譯) 衣類十一件 加平邑內幼稚園慈母一同 十件 同 金은자 朴興祿 七件 同 朴아지 四件 同 金영중 二件 同 申聖언 二件 同 崔淳鳳 一件 同 申英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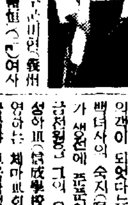
小計 壹百貳拾七件也

累計 六萬四千九百拾四件也

◇訂正 二十八日附 朝刊 西氷庫風會 義捐金中 李敬善은 李敬季으로 金貴因은 金壽因으로 訂正함

품판돈도千圓 學園에喜捨

신성교와유치원에제공 故白禮恒女史遺志



【의주】 평북 의주군비현(義州郡枇峴) 배래항(白禮恒)(二七)여사는 그간 그의 남편은 만주방면으로 방랑의길을 떠나 돌아오지아니하므로 하는수없이 아낙봉천 등지로 헤매이면서 이분삽 식모혹은 품팔이로 고생스러운 세상을 지내오던바 二十여일전에 전기 친정에 왓다가 불행이 병마에 걸리어 지난二十五일 그만 불귀의객이 되엇다는데 그의친족들은 백녀사의 숙지(宿志)를 따라 그가 생전에 푼푼이 모아두엇던 현금천원을 그의 유지대로 당지 신성학교(信成學校)와 유치원을 경영하는 체마교회(香馬敎會)에 제공하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하여달라고 하엿다는바 당국자들은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여사의 장거를 찬하한다고한다.

(사진은 故백래항녀사와 타고 다니든자전거)

浦項築港問題 再次로陳情

下村、中谷兩氏上京

【포항】 경북의 관문인 포항항(浦項港)은 아직 축항이 완성되지못하야 포항발전상 중대한관계가 잇슬뿐아니라 경북의 산업발전상 지대한 영향이 잇어 하루밧비 축항의 실현을 요망하여오든바 금번 철도국에서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의 三개년 계획으로 一천만원의 공비를들려 광궤(廣軌)로 곳처노케됨을 따라 포항축항문제는 一층중요성을 가지게되어 총독부당국에 그촉진을 진정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번에 재차 하촌(下村)중곡(中谷) 양씨를 총독부당국에 파견하야 속히 실현되도록 진정하엿다고한다.

椅子를寄贈

【김화】 강원도 김화군 김화면 읍내리(金化郡金化面邑內里) 공의 리영순(李永俊)씨는 자남부임이래 금일까지 군내극빈자에게 무료시약과 무료치료를 행하여왓으며 금반에는 또 동읍 김화감리교회(金化監理敎會)의 경영인 사립유치원(私立幼稚園)에 원아용의자(園兒用椅子) 三十개(금七十원)를 기증하엿다고한다.

星州月恒普校 位置問題로紛糾

郡의指定에面民反對

【성주】 경북 성주군월항면(星州郡月恒面)은 이때까지 보통학교하나가 없엇슴은 여러가지 다른사정도 잇엇지마는 주로 위치쟁탈전에 만흔 이유가 잇엇든데 수년이래 군당국의주선으로 학교를신설코저 기부금 三천五백원을 모아노코 학교위치는 군청에서 공평하게 정하기로하엿든바 지난 十七일에 군수와 학교비평의원가 나와서 동면안포동에 작정하엿다 하는데 이것은 면의 중앙이 되지않는다는이유로 면민들이 지난二十二일 동면용각동에 모이어 면민대회를열고 군당국의처사를 반대하기로 결정하엿다는데 일반은 사건의 진전을 매우 주목한다고 한다.

呂運鉉被檢

【여수】 전남 여수읍서정(麗水邑西町)출생으로 광주고보맹휴사건과 광주학생사건에 관련되어 다년간 광주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수년전에 동경으로 건너가잇던 여운현(呂運鉉)은 최근에 검거되어 지난二十六일에 여수경유 광주경찰부로호송되엇다는데 사건내용은 아마도 작년중에 발각한 여수적색노동조합사건에 관련된듯하다고 한다.

本報浦項支局長 理由없이檢擧

十三일만에 미안하다고석방 神經過敏한浦項警察

【포항】 본사포항지국장리재삼(浦項支局長李再森)군은 신문대금집금차 지난十二일 동해면(東海面)방면을거처 十三일 구룡포(九龍浦)에갓든바 동일오후 十二시경 당지주재소에서 신문대금집금한다는 구실로 각지로다니며 청년들에게 악사상을 선전하는듯한 혐의가잇다는 이유를 붙이여 검속하야 이래十여일동안 무슨단서를 얻고저 각방면으로 조사하엿으나 아무이러한 증거를 발견하지못하고 지난二十四일 오후五시경 그대로 미안하게되엿다고 석방하엿는데 이는 너무나 신경과민한처사이므로 어데까지든지 법에의하야 사건을 명백히하기위하야 항쟁하게되엿다.

家屋建築中 兩名이死傷

龜城東岩洞의慘事

【귀성】 지난二十三일 오후三시경 평북 귀성군천마면동암동(龜城郡天摩面東岩洞)이용화(李龍化)는 자기집을 건축하든중에 돌연 전복되어 인부 이대봉(李大鳳)(二□)는 현장에 즉사하고 전영도(全永道)(二□)는 중상을 당하엿다는데 그는 생명에는 관계없으리라한다.

七十老人이自殺

【서산】 지난二十五일 서산읍 뒤산 부춘산(富春山)에서 목을매여 자살한 노인이 잇섯는데 그는 읍내 신재원(申在元)(七○)으로 아마같은 생활난에 견디다못하야 그와같이 자살한것이라는데 서산서에서 검시한후 시체는 그의 친족에게 인도하엿다한다.

孟山에變死體

【맹산】 지난二十三일에 평남맹산군지덕면 학포리(孟山郡智德面鶴浦里)앞 강인 대동강 상류에서 그동리 방선엽(方□□)씨가 사체하나를 발견하야 지서에 급보하엿다 그럼으로 주재소에서는 파부장 정공의(鄭公儀)가 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하엿는데 [illegible] 그가족의 말을들으면 이사자가 [illegible] 판명되엿다고한다.

深夜의太陽 (95)

金基鎭 作 李象範 畵

삼일천하 (十二)

아직도 의논이 결정되지 않고 잇을때 저편쪽에 일본병대를파한 께잇는 죽첨공사로 부터, 천한용역이 다름질하야 왓다.

「어떠케들 하시고 계십니까? 빨리 결정해하십시오.」

그는 여러사람의 곁으로와서 이같이 재촉한다.

「잠간만 기달리라고 공사에게 말하시오.」

김옥균은 이러케 대답하엿다.

천산인은 또다름질처서 공사에게로 갓다.

「자아 얼른얼른 이야기합시다! 누구누구는 원산으로 가고 누구누구는 부산으로가고 누구누구는 인천으로 간다는것을 작정합시다.」

「그러하지오…… 얼른들 말슴하시오.」

「자― 대감부터 말슴하십시오……어디로 향하시겟서요……?」

김옥균은 시광범에게 무럿다.

명이 위태하다는 소식을들엇는데요!……그러니까 더구나 이럿게 시간만 보내고 잇을수없습니다.」

「그러면 공사의일행은 장차 어디로먼저가시려오?」

「물론 공사관으로 먼저 가야하지안켓소? 그리고 우리군대는 일이이와같이된이상 하루도 경성에 주둔(駐屯)하고 잇을수없는형편이오. 또 내일쯤이면 천세환(千歲丸)이 인천에 입항하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즉시 공사관을 따라서 대강대강 [illegible] 가지고 인천으로 물러가야하겟소이다.」

「천세환이 내일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같이 가십시다. 천세환을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재거할계획을 하시오그려.」

「일본으로 가서잇다가 재거하자……」

김옥균은 일인의 말로 중얼거렷다. 일본으로가면 재거할수 잇[illegible]

「나는 공사를 따러서 일본으로 가겟소.」

「그리고 영감은?」

서재필을보고 그는 또 이같이 무럿다.

「저는 부산으로 향하겟습니다」

[illegible] 그들의 결의로와서 빨리 이러나기를 재촉한다.

「얼른들 갑시다 언제 까지나 이러케 의논만하고들 잇겟소!」

「이되겟어요! 우리군대가 한시간이라도 지체할수없어요.」

「……」

「지금 공사관이 어떠케 되엿는지 알수없습니다. 악가 공사관에서 보고가 왓는데 공사관을 수비하든 군대들이 거의다 [illegible] 경비대가 떠난뒤에 공사관은 [illegible] 일이 아닌가 [illegible] 국기(國旗)의 안부를 모르면서 이러케 시간을 보내고 잇을수없습니다……!」

「미안합니다……그런대 거류민제씨에게는 [illegible]」

김옥균이 생각난것처럼 묻는다.

[illegible]

그는 별안간에 이같이 결심하고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家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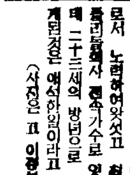
家庭時論
눈에거슬리는 것두세가지

생량한날씨
···입맛도는가을음식···
(二)

산해진미를 가춘성찬도 김치없으면이빠진그릇
김치 깍뚝이 잘담그는 비결은?

大砲일가? 아닙니다! 天文學者의 눈입니다。

李景雪孃永眠
悲劇의女優
昨廿八日새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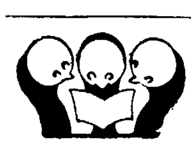
신경쇠약에대하야 (三)
全州慈惠醫院 安鍾一

어린이

동화
욕심만흔평 (二)

오늘의 이야기
一万四千개의 빠나나먹고 자란애기

항상머리가무겁고 눌리는것갓흔

家庭常識

위험한백색양지

史外奇聞

老判事의슬픔
(一) 三湖生

운동때문에경쟁 심을일으키고

수면을충분히 하는것도

紙上病院

원기가없어

(一) ブロムカリ 三、〇
ブロムソダ 一、〇
苦丁 二、〇
水 一〇〇、〇
右一日三回에 식간복용 이약을 十일간 계속복용하시오
(京城帝大醫學博士)

세계제一의장사
모스코에 출현

최근 로서아익서울 「모스코」에 굉장히 기운세인 거인(巨人)이 나타낫는데 그사나이는 「크리노킨」이라고하는 올에 三十七세 되는 장년로동자라고 합니다。 공장에 잇는 十만一천키로그람(약二백七十관)되는 라선반(螺旋盤)을 아조가볍게 드러날려서 사람들을 놀래고잇는데 그사람 어하로에 먹는 음식은 소고기가二키로、빵이四키로、우유가四릿도르、비게가一키로、사탕이一키로라고하니 참으로 놀랍지안습니까。

그런데 모스코에서는 이장사를 주인공(主人公)으로하야 활동사진 「경기장의 승리자」를만들라고한다합니다。그러니 조선의장사 김부귀도 질끔못하겟지요? 여러분도 그같은장사가되도록 몸을 튼튼하게하십시요。

장래에는사람이 눈하나가진 어린애가 돼?

미국의 법률가(法律家)요 또소설가(小說家)인 「토마스·차러드」라고하는 유명한 박사는말하기를 우리사람은 지금원쪽눈이 누구든지 조처못한데 이차이점점 심해가서 몇만년뒤에는 우리는모다 눈한개가진 어린애가 되리라고예언(豫言)을하고잇읍니다。 만일이것이 참말이라면 우리가서는 꼿파갈이되지 안켓습니까。참으로 반갑지 안흔 소식이라하겟습니다。

第五回全朝鮮 男女學生作品展
—出品種目及搬入場所—

中等部 綴畵 習字 手藝品
初等部 綴畵 習字 手工品
搬入場所 本社、平壤、大邱、咸興各支局

◆期 九月廿五日부터十月一日까지
◆場 所—本社樓上
◆出品期限—九月十五日까지

定規

主催 東亞日報社

發行直時 人氣沸騰
新東亞 新家庭
九月號
鑛業特輯
特輯 家庭經濟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